광주·전남 공동주택 절반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2018년부터 6층 이상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노후 단지 사각지대
미설치 비율 광주 동구 63%·전남 강진 92% 가장 높아 화재 무방비

광주·전남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 등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던만큼 광주·전남 지역의 화재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7.8%로 전국에서 첫 손에 꼽히는 '아파트 도시'인만큼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공동주택 총 1162단지 중 460단지(39.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총 1516단지 중 917단지(60.4%)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광주·전남 전체 아파트의 51.4%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들은 소방시설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설치 의무를 비켜간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6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법은 2018년 이후부터 시행됐다.

1990년 이전에는 당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고, 1990~2004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2004~2018년에는 11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만 모든 층에 의무 설치 규정을 뒀다.

문제는 개정된 법이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려면 벽부터 천장까지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해 신축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지은 지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은 구도심에 가까울수록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비율은 광주시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 43%(369단지 중 160단지), 서구 37%(209단지 중 78단지), 광산구 36%(260단지 중 94단지), 남구 29%(225단지 중 66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강진이 전체 90단지 중 83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율이 92%에 달했다. 보성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 85%(67단지 중 57단지), 진도 82%(71단지 중 68단지) 등 전남에서는 미설치율 80%를 넘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며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산강변 흐드러진 코스모스 2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첨단대교 아래 영산강변에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스프링클러 미설치 논란 '해남126 오시아노' 위탁운영업체 하얏트→대일인터내셔널 변경

일부 층 스프링클러 미설치에도 개장 강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관광공사의 '해남126 오시아노' 호텔<10월 17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 위탁운영업체가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티그룹(이하 대일인터내셔널)으로 변경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 오시아노 호텔 책임운영사인 ㈜이지스 측에서 호텔 위탁운영 업체를 기존 하얏트호텔에서 대일인터내셔널로 변경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일인터내셔널은 일회용 반창고 '대일밴드' 생산 업체인 대일화학공업의 계열사다.

대일인터내셔널과 이지스 간 계약서에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인 하얏트호텔이 호텔 운영 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계약과 관련, 공사 측은 책임운영사인 이지스의 계약관계에 대해 관여하거나 위탁운영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얏트호텔에서 운영업체가 변경돼 이중계약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공사는 하얏트호텔과 직접 계약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계약 등 우려는 공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사는 오는 31일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일대에서 4성급 리조트호텔 '해남126 오시아노'를 개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개발을 맡기고 400억원을 투입해 지상 1~5층, 연면적 9400여㎡에 120실 규모의 객실을 갖추고 지어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최근 하얏트호텔은 건축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호텔의 1~3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지스와 맺은 위탁운영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녀 죽음 수사자료 정보공개 요구 정당"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자녀 사망사건에 대한 부모의 수사기록 공개요청을 거부한 검찰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은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중학생인 자녀가 숨진 사고와 관련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가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학생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돼 제3자의 신분이 노출돼 정신적 고통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사건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고 설령 정보공개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도 A씨의 알권리와 권리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건 12월 18일 선고

무기징역·무죄 공방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가 오는 1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여·46)씨의 재심재판에서 검찰은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결심 재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가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이날 김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률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김씨의 살해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재심 선고재판은 12월 18일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군의회
Gurye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 희망을 설계하는 밝은 의회

제313회 임시회 방청 안내

2024. 10. 28. ~ 11. 5. (9일간)

- 개회식 : 2024. 10. 28.(월) 14:00
- 폐회식 : 2024. 11. 05.(화) 11:00
- 장 소 :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 내 용 :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청: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영상회의록-생방송) 홈페이지 '생방송 일정' 참조